

대중매체 영향에 따른 일부 대학생의 식품안전 지식 조사

† 최 병 범

신흥대 식품영양과

Studies on Food Safety Knowledge of College Students according to Mass-Media Impact

† Byung Bum Choi

Dept. of Food and Nutrition, Shinheung University, Uijeongbu 480-701, Korea

Abstract

This study was conducted to assess food safety knowledge of college students according to mass-media reports. To accomplish this, a survey was conducted to investigate the reliability, of primary mass-media sources on Bovine Spongiform Encephalopathy(BSE) as well as the preferences of college students. The most common sources of media consumed by male and female students were terrestrial television(TV)(60%), the internet(21%), and newspapers(11%) and terrestrial TV(60%), newspapers (18%), and the internet(17%), respectively. The preferences for media of major and non-major students were terrestrial TV(64%), newspapers(17%), and the internet(14%) and terrestrial TV(51%), the internet(22%), and newspapers(19%), respectively. The reliability of media as viewed by male students were as follows: terrestrial TV(53%) and the internet(40%), whereas for female students, these values were terrestrial TV(55%) and the internet(37%). The reliability of media as viewed by major and non-major students was as follows: terrestrial TV(67%) and the internet(28%), and terrestrial TV(44%) and the internet(44%), respectively. In the case of male students, the primary sources for information regarding BSE were terrestrial TV(54%) and the internet(38%), whereas for female students, the primary sources were terrestrial TV(57%) and internet (37%). In the case of major students, the primary sources for information regarding BSE were terrestrial TV(52%) and the Internet(40%), and for non-major students, the internet(47%) and terrestrial TV(39%). Both male and female students were found to have less knowledge regarding prions, SRM(Specified Risk Materials), MM(methionine-methionine) type genes, and cow above 30 months associated with BSE compared to the other factors associated with this disease. The BSE-related knowledge held by major and non-major students was revealed unknown more than the majority of responses. Based on these results, greater effort should be made to provide meaningful information to improve the food-safety knowledge of college students according to mass-media.

Key words: college student, food safety, mass-media, Bovine Spongiform Encephalopathy(BSE)

서 론

인간광우병(variant Creutzfeldt-Jakob Disease, vCJD: 변형 크로이츠펠트-야콥병)은 인간의 “광우병”(Bovine Spongiform Encephalopathy, BSE: 소 해면체성 뇌병증) 소의 “변형 프리온(prion)” 단백질 섭취, 30개월령 이상 소의 SRM(Specified Risk

Materials: 특정위험물질) 및 MM(methionine-methionine: 메티오닌-메티오닌)형 유전자에 기인한 것으로 알려져 더욱 더 주목받고 있다(Prusiner SB 1994; Cousen 등 1997; Kim YS 2001; Collins 등 2004; Lee YS 2004).

식품 및 외식산업에서 위해요인이 식품에 혼입될 가능성이 증가하면 식품안전 문제는 광역화 및 대규모화를 초래하

† Corresponding author: Byung Bum Choi, Dept. of Food and Nutrition, Shinheung University, Uijeongbu 480-701, Korea. Tel: +82-31-870-3505, Fax: +82-31-870-3509, E-mail: bbchoi@shc.ac.kr

여 특정 집단 및 특정 지역에만 국한하지 않고, 국가 전체 혹은 국민 전체에게로 광범위한 파급 효과를 낳게 된다고 보고되었다(Jin HJ 2006). 식품안전에 관한 부정적인 소식은 곧바로 소비자들의 즉각적인 반응으로 이어져 해당 제품에 대한 현저한 소비 감소로 나타나, 소비시장뿐만 아니라 식품산업과 식품무역에까지 영향을 끼친다고 알려졌다(Johnson FR 1988). 따라서 식품안전 문제에 대한 중요성만큼이나 대중매체 등 언론의 올바른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언론의 영향력이 큰 만큼 선정적 보도는 소비자의 민감한 반응을 통해 사회 경제적으로 큰 충격을 줄 수 있고, 이는 해당 산업의 황폐와 무역의 불이익 등을 불러 올 수 있다고 보고되었다(Kim & Kim 2001). 식품안전과 관련된 대중매체의 보도는 육류 소비에 있어 가격, 소득, 소비 패턴 그리고 계절성만큼이나 중요한 변수이며, 현대 소비자들은 그 정보를 대부분 대중매체에 의존해서 습득하기 때문에 방송과 신문에서 나오는 뉴스 및 분석은 소비자의 식품 소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알려져 왔다(Piggott & Marsh 2004).

본 연구는 식품안전과 관련된 대중매체의 보도가 청년 소비자인 대학생의 식품안전 지식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대중매체에 대한 대학생의 기호도와 광우병에 대한 지식을 조사하여, 향후 식품안전 문제에 대한 교육과 홍보의 기초자료 및 대책을 마련하고자 한다.

연구 방법

1. 조사 대상 및 조사 기간

본 연구의 조사 대상자인 대학생들을 성별과 식품관련 전공 유무 등 두 그룹으로 나누어 조사 분석하였다. 먼저 대학생들을 남학생과 여학생으로 구분하여 이들을 대상으로 2009년 9월부터 2009년 10월까지 두 달 동안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총 700부의 설문지를 배부하여, 이 중 불완전한 응답으로 신뢰성이 부족한 자료를 제외하고 621부(회수율 89%)를 회수한 후 통계 처리하였다. 또한, 대학생을 소속 대학 학과에서 식품학 전공에 관한 해당 관련 교과목을 이수한 자를 기준으로 식품관련 전공자와 식품관련 비전공자로 구분하였다. 이들을 대상으로 2010년 9월부터 2010년 10월까지 두 달 동안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전공자와 비전공자 각각 총 300부의 설문지를 배부하여, 이 중 불완전한 응답으로 신뢰성이 부족한 자료를 제외하고 각각 279부(회수율 93%), 277부(회수율 92%)를 회수한 후 통계 처리하였다.

2. 조사 내용 및 방법

본 연구에서 사용된 설문지는 성별, 대중매체 선호도 및 신뢰도, 광우병 정보 주요 제공 대중매체, 최다 광우병 발생

국가, 한국의 발병 가능성 및 치매 연계성, 광우병 관련 심층 지식 등의 항목들을 측정하였다. 조사 과정에서 설문항목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응답자에게는 조사 대상자와 면접원이 설문지 항목을 직접 설명하고 응답을 받는 형식을 취하였다.

3. 자료 분석 방법

불완전한 응답으로 신뢰성이 부족한 자료를 제외하고 회수하여 수집된 자료의 통계처리는 SPSS PC package program (Win, ver.12)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조사 대상자의 대중매체 선호도 및 신뢰도, 광우병 정보 주요 제공 대중매체, 최다 광우병 발생 국가, 한국의 발병 가능성 및 치매연계성, 광우병 관련 심층지식 등에 대한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χ^2 -test($p < 0.05$)를 실시하였다.

결과 및 고찰

1. 조사 대상자의 구분

성별과 식품관련 전공 유무로 구분한 대학생의 대중매체 기호도와 광우병 지식을 조사하기 위하여 먼저, 신홍대 학생들을 성별 기준으로 남학생과 여학생으로 구분하였다. 남학생은 전자통신과 72명(30%), 도시환경관리과 46명(19%), 치기공과 45명(19%), 호텔조리과 32명(13%), 실내디자인과 21명(9%), 식품영양과 17명(7%), 간호과 8명(3%) 등 모두 241명이었으며, 여학생은 식품영양과 120명(32%), 간호과 90명(24%), 실내디자인과 62명(16%), 치기공과 33명(9%), 호텔조리과 33명(9%), 도시환경관리과 31명(8%), 전자통신과 11명(2%) 등 모두 380명이었다(Table 1). 한편, 식품관련 전공 학생의 학교 및 학과의 분포는 신홍대 식품영양과 137명(49%), 덕성여대 식품영양학과 90명(32%), 우송대 식품생물공학과 52명(19%) 등 모두 279명이었으며, 비전공 학생의 학교 및 학과의 분포는 호서대 생명과학과 99명(36%), 호서대 생명공학과 88명(32%), 신홍대 치기공과 45명(16%), 이화여대 체육과학과 32명(11%), 그리고 신홍대 간호과 8명, 성균관대 컴퓨터공학과 5명 등 기타 13명(5%) 등 모두 277명이었다(Table 1).

2. 조사 대상자의 식품안전 지식 제공 매체 조사

대학생의 식품안전 정보에 대한 주요 대중매체를 조사하기 위하여 우선, 대학생의 대중매체에 관한 선호도와 신뢰도, 그리고 광우병 정보의 주요 제공 매체 등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남학생의 대중매체에 대한 선호도는 지상파 TV(60%), 인터넷(21%), 신문(11%)의 순이었고, 여학생은 지상파 TV(60%), 신문(18%), 인터넷(17%)의 순이었다(Table 2A). 한편, 전공자의 대중매체에 대한 선호도는 지상파 TV(64%), 신문(17%), 인터넷(14%)의 순이었고, 비전공자는 지상파 TV(51%), 인터넷

Table 1. Categories of college students

Group(A)	Department of	N	%
Male	Electronic Communication	72	30
	Urban Environmental Management	46	19
	Dental Technology	45	19
	Hotel Culinary Arts & Nutrition	32	13
	Interior Design	21	9
	Food & Nutrition	17	7
	Nursing	8	3
Total		241	100
Female	Food & Nutrition	120	32
	Nursing	90	24
	Interior Design	62	16
	Dental Technology	33	9
	Hotel Culinary Arts & Nutrition	33	9
	Urban Environmental Management	31	8
	Electronic Communication	11	2
Total		380	100
Group(B)	University(Univ.) Department(Dept.)	N	%
Major students	Shinheung Univ. Dept. of Food & Nutrition	137	49
	Duksung Women's Univ. Dept. of Food & Nutrition	90	32
	Woosong Univ. Dept. of Food Science & Biotechnology	52	19
Total		279	100
Non-major students	Hoseo Univ. Dept. of Life Science	99	36
	Hoseo Univ. Dept. of Biotechnology	88	32
	Shinheung Univ. Dept. of Dental Technology	45	16
	Ewha Womans Univ. Dept. of Health Education & Management	32	11
	Others	13	5
Total		277	100

Table 2. The preference and reliability with mass-media of male and female(A), major and non-major(B) students

Mass-media	Male		Female		Total(A)		χ^2 (p)	Major		Non-major		Total(B)		χ^2 (p)	
	N	%	N	%	N	%		N	%	N	%	N	%		
Preference	Terrestrial TV	144	60	229	60	373	60	9.319 (0.097)	178	64	142	51	320	58	12.174* (0.032)
	Cable TV	10	4	7	2	17	3		4	1	5	2	9	2	
	Radio	3	1	3	1	6	1		2	1	8	3	10	2	
	Newspaper	26	11	67	18	93	15		48	17	54	19	102	18	
	Internet	51	21	66	17	117	19		40	14	60	22	100	17	
	Others	7	3	8	2	15	2		7	3	8	3	15	3	
	Total	241	100	380	100	621	100		279	100	277	100	556	100	
Reliability	Terrestrial TV	128	53	210	55	338	54	2.103 (0.835)	186	67	123	44	309	56	31.066* (0.000)
	Cable TV	4	2	3	1	7	1		4	1	5	2	9	2	
	Radio	1	0	3	1	4	1		2	1	2	1	4	1	
	Newspaper	12	5	23	6	35	6		8	3	22	8	30	5	
	Internet	95	40	140	37	235	38		79	28	123	44	202	36	
	Others	1	0	1	0	2	0		0	0	2	1	2	0	
	Total	241	100	380	100	621	100		279	100	277	100	556	100	

* $p < 0.05$ by χ^2 -test.

넷(22%), 신문(19%)의 순이었다(Table 2B). 반면, 대중매체의 신뢰도는 남학생은 지상파 TV(53%), 인터넷(40%)의 순이었고, 여학생 역시 지상파 TV(55%), 인터넷(37%)의 순이었다(Table 2A). 전공자는 지상파 TV(67%), 인터넷(28%)의 순이었고, 비전공자는 지상파 TV와 인터넷 모두 44%로 동일하였다(Table 2B).

식품안전 정보를 얻는 주요 대중매체 조사에서 남학생은 지상파 TV(54%), 인터넷(38%)의 순이었고, 여학생도 지상파 TV(57%), 인터넷(37%)의 순이었다(Table 3A). 또한, 전공자는 지상파 TV(52%), 인터넷(40%)의 순이었고, 비전공자는 인터넷(47%), 지상파 TV(39%)의 순이었다(Table 3B). 전공자와 비전공자의 대중매체에 대한 선호도, 신뢰도 및 식품안전 정보 제공의 주요 대중매체는 유의적인 차이가 있었다.

이와 같은 결과를 볼 때 남학생과 여학생, 전공자와 비전공자 모두 식품안전에 관한 정보와 출처 신뢰도를 지상파 TV와 인터넷에서 얻고 있어 기성세대가 된 이후에도 자칫 정보의 신뢰도가 떨어질 수 있고, 흥미 위주의 정보가 될 수 있어 우려된다. 반면, 학교 교육과 전문서적에 의한 정보 습득은 낮아 식품안전 관련 정보와 지식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학교 등

신뢰할 수 있는 기관에서 체계적인 교육이 필요하다고 본다(Choi BB 2009). 대학생의 건강교육은 대부분 교과목으로 1학기 정도의 학교 수업 2~3시간에 불과해 이는 건강을 위한 지식과 태도를 익힐 수 있는 중요한 교육 시기라는 점을 고려할 때 교육시간이 매우 부족하다고 사료된다.

3. 조사 대상자의 식품안전 지식 조사

대학생의 식품안전 지식을 알아보기 위하여 식품 위해 질병 중 지난 2008년 우리 국민의 주요 관심사였던 광우병을 선정하여 조사하였다. 최다 광우병 발생 국가에 대한 질문에는 남학생은 미국(74%), 영국(17%)의 순이었고, 여학생 역시 미국(77%), 영국(16%)의 순으로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 압도적으로 미국으로 응답하였다(Table 4A). 전공자는 미국(66%), 영국(29%)의 순이었고, 비전공자 역시 미국(75%), 영국(17%)의 순으로 전공자와 비전공자 모두 압도적으로 미국으로 응답하였다(Table 4B). 전공자와 비전공자의 최다 광우병 발생 국가의 설문에 대한 응답은 유의적인 차이가 있었다. 또한, 향후 우리나라에서 광우병이 발생할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서 남학생은 ‘조금 있다’(52%), ‘거의 없다’(30%), ‘많다’(13%)

Table 3. The primary sources with food safety-information among mass-media of male and female(A), major and non-major (B) students

Mass-media	Male		Female		Total(A)		χ^2 (p)	Major		Non-major		Total(B)		χ^2 (p)
	N	%	N	%	N	%		N	%	N	%	N	%	
Terrestrial TV	131	54	222	57	353	57	2.106 (0.834)	146	52	109	39	255	46	16.484* (0.006)
Cable TV	3	1	2	1	5	1		2	1	2	1	4	1	
Radio	2	1	2	1	4	1		2	1	4	1	6	1	
Newspaper	12	5	15	3	27	4		8	3	26	9	34	6	
Internet	91	38	136	37	227	36		114	40	129	47	243	44	
Others	2	1	3	1	5	1		7	3	7	3	14	2	
Total	241	100	380	100	621	100		279	100	277	100	556	100	

*p<0.05 by χ^2 -test.

Table 4. BSE¹⁾ risk countries to think male and female(A), major and non-major(B) students

Countries	Male		Female		Total(A)		χ^2 (p)	Major		Non-major		Total(B)		χ^2 (p)
	N	%	N	%	N	%		N	%	N	%	N	%	
United States	179	74	292	77	471	75	4.966 (0.420)	184	66	208	75	392	70	12.353* (0.030)
England	42	17	63	16	105	17		80	29	48	17	128	23	
Japan	0	0	3	1	3	1		2	1	2	1	4	1	
China	12	5	11	3	23	4		6	2	5	2	11	2	
Korea	4	2	3	1	7	1		1	0	4	1	5	1	
Others	4	2	8	2	12	2		6	2	10	4	16	3	
Total	241	100	380	100	621	100		279	100	277	100	556	100	

*p<0.05 by χ^2 -test, ¹⁾ BSE: Bovine Spongiform Encephalopathy.

의 순이었고, 여학생은 ‘조금 있다’(66%), ‘많다’(20%), ‘거의 없다’(12%)의 순으로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 과반수 이상이 발생 가능성이 있다고 응답하였다(Table 5A). 전공자는 ‘조금 있다’(68%), ‘많다’(17%), ‘거의 없다’(12%)의 순이었고, 비전공자는 ‘조금 있다’(59%), ‘거의 없다’(21%), ‘많다’(17%)의 순으로 전공자와 비전공자 모두 압도적으로 발생 가능성이 있다고 응답하였다(Table 5B). 한국 소고기시장은 국내 소고기의 선호 현상과 미국과 호주 등 외국에서 들어오는 소고기의 약진 등의 일본과 유사한 유통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한국은 정치, 경제, 문화면에 있어 일본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 한 쪽에서 시작한 유행은 다른 쪽에게 단시일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되었다(Jin & Koo 2003). 지난 2001년에도 한국갤럽의 여론 조사에서 한우가 광우병으로부터 안전하다는 정부 발표를 ‘신뢰하지 않는다’(54%)는 응답이 ‘신뢰한다’(41%)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 현재까지 광우병에 대한 우리나라 국민의 불안감은 다른 나라에 비해 높은 수준으로 여겨진다(Lee EJ 2001). 이처럼, 비록 한국에서 아직까지 광우병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국내 소비자들은 대중매체의 보도를 통한 유럽이나 미국에서 발생한 광우병으로부터 심각한 영향을 받았으리라 사료된다. 다행히 2009년 6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쇠고기 이력추적제가 성공적으로 정착된다면 가축의 질병, 식중독 등 위생·안전상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경로를 추적해 소비자 피해와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여 소비자들을 안심시키고 믿음을 주는 시스템을 통해 광우병 관련 정부의 발표에 대한 신뢰를 증진시켜 줄 것이다(www.mtrace.go.kr 2010).

광우병과 치매 연관성에 대한 질문에는 남학생은 ‘조금 있다’(36%), ‘거의 없다’(29%), ‘없다’(19%)의 순이었고, 여학생은 ‘조금 있다’(53%), ‘거의 없다’(22%), ‘많다’(15%)의 순으

로 응답하였다(Table 5A). 특히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과반수 이상이 ‘조금 있다’ 이상으로 응답해 치매 연관성에 강한 확신 경향을 보여주었다. 전공자는 ‘조금 있다’(53%), ‘많다’(21%), ‘거의 없다’(17%)의 순이었고, 비전공자는 ‘조금 있다’(47%), ‘거의 없다’(25%), ‘많다’(15%),의 순으로 전공자와 비전공자 모두 과반수 이상이 ‘조금 있다’ 이상으로 응답해 전공자와 비전공자 모두 관계있다고 생각하였다(Table 5B). 광우병과 치매 연관성은 현재 전혀 무관함에도 불구하고 다수가 응답한 것은 대학생을 포함한 일반 국민은 최다 광우병 발생 국가처럼 광우병과 인간광우병의 정확한 차이와 인식이 아직도 부족한 것으로 사료된다.

4. 조사 대상자의 식품안전 심층지식 조사

남녀 대학생의 광우병 관련 심층지식 질문에서 프리온(prion)은 ‘모른다’와 ‘조금 안다’가 남학생은 전체의 73%, 20%, 여학생은 전체의 76%, 21%, SRM(Specified Risk Materials)은 ‘모른다’와 ‘조금 안다’가 남학생은 73%, 22%, 여학생은 81%, 16%, 30개월 미만 소는 ‘모른다’와 ‘조금 안다’가 남학생은 33%, 48%, 여학생은 28%, 54%, MM(methionine-methionine)형 유전자는 ‘모른다’와 ‘조금 안다’가 남학생은 75%, 20%, 여학생은 80%, 17%를 각각 응답하였다(Table 6A). 한편, 프리온은 ‘조금 안다’와 ‘잘 안다’가 전공자는 전체의 31%, 16%, 비전공자는 전체의 40%, 20%, SRM은 ‘조금 안다’와 ‘잘 안다’가 전공자는 27%, 12%, 비전공자는 26%, 6%, 30개월령 이상 소는 ‘조금 안다’와 ‘잘 안다’가 전공자는 56%, 24%, 비전공자는 58%, 21%, MM형 유전자는 ‘조금 안다’와 ‘잘 안다’가 전공자는 25%, 12%, 비전공자는 58%, 21%를 각각 응답하였다(Table 6B). 전공자와 비전공자의 광우병 관련 항목 중에서

Table 5. The outbreaks possibility in Korea, and relationships with dementia of BSE¹⁾ for male and female(A), major and non-major(B) students

Items	Male		Female		Total(A)		χ^2 (p)	Major		Non-major		Total(B)		χ^2 (p)	
	N	%	N	%	N	%		N	%	N	%	N	%		
Possibility in Korea	None	12	5	10	3	22	3	7	3	7	3	14	3	40.252* (0.000)	14.855* (0.002)
	Little	73	30	43	11	116	19	33	12	60	21	93	17		
	A little	126	52	251	66	377	61	191	68	163	59	354	63		
	Abundant	30	13	76	20	106	17	48	17	47	17	95	17		
	Total	241	100	380	100	621	100	279	100	277	100	556	100		
Relationships with dementia	None	46	19	37	10	83	13	26	9	36	13	62	11	21.245* (0.000)	9.548* (0.023)
	Little	69	29	84	22	153	25	47	17	69	25	116	21		
	A little	87	36	201	53	288	46	149	53	131	47	280	50		
	Abundant	39	16	58	15	97	16	57	21	41	15	98	18		
	Total	241	100	380	100	621	100	279	100	277	100	556	100		

* $p < 0.05$ by χ^2 -test, ¹⁾ BSE: Bovine Spongiform Encephalopathy.

Table 6. The BSE¹⁾-related knowledge of male and female(A), major and non-major(B) students

Items	Male		Female		Total(A)		χ^2 (p)	Major		Non-major		Total(B)		χ^2 (p)
	N	%	N	%	N	%		N	%	N	%	N	%	
Prion	Unknown	176	73	288	76	464	75	148	53	110	40	258	46	2.818 (0.244)
	A little known	49	20	78	21	127	20	86	31	112	40	198	36	
	Well known	16	7	14	3	30	5	45	16	55	20	100	18	
	Total	241	100	380	100	621	100	279	100	277	100	556	100	
SRM ²⁾	Unknown	176	73	309	81	485	78	169	61	187	68	356	64	5.981 (0.050)
	A little known	53	22	59	16	112	18	76	27	73	26	149	27	
	Well known	12	5	12	3	24	4	34	12	17	6	51	9	
	Total	241	100	380	100	621	100	279	100	277	100	556	100	
Cow above 30 months	Unknown	81	33	108	28	189	30	57	20	57	21	114	20	2.504 (0.286)
	A little known	115	48	205	54	320	52	155	56	160	58	315	57	
	Well known	45	19	67	18	112	18	67	24	60	21	127	23	
	Total	241	100	380	100	621	100	279	100	277	100	556	100	
MM type ³⁾ gene	Unknown	180	75	302	80	482	78	175	63	57	21	232	42	2.447 (0.294)
	A little known	48	20	65	17	113	18	70	25	160	58	230	41	
	Well known	13	5	13	3	26	4	34	12	60	21	94	17	
	Total	241	100	380	100	621	100	279	100	277	100	556	100	

* $p < 0.05$ by χ^2 -test, ¹⁾ BSE: Bovine Spongiform Encephalopathy, ²⁾ SRM: Specified Risk Materials, ³⁾ MM: Methionine(Met)-Methionine(Met).

30개월령 이상 소를 제외한 프리온, SRM, MM형 유전자에 대한 응답은 유의적인 차이가 있었다.

이상의 결과에서 대학생들은 식품안전에 관한 정보와 출처 신뢰도를 주로 지상파 TV와 인터넷에서 얻고 있어 정보의 신뢰도가 떨어질 수 있고, 흥미 위주의 정보가 될 수 있으며, 최다 광우병 발생 국가 및 광우병과 인간광우병의 정확한 차이와 인식이 아직도 부족한 것으로 사료된다. 식품안전과 관련된 대중매체의 보도가 청년 소비자인 대학생의 식품안전 지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지금까지의 결과를 토대로 향후 식품안전에 대한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교육과 홍보의 기반을 구축할 수 있으며, 광우병 이외에도 조류독감이나 구제역과 같은 사태가 발생했을 때 수요구조의 변화를 예측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할 수 있다(Seong JE 2007). 그리고, 국내 생산자와 공급자에게 육류 생산과 유통분야에 의미 있는 정보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되며, 육류 생산, 유통, 소비에 관여하고 있는 정책 및 행정 관계자에게는 식품안전 문제가 발생할 경우 소비자의 동향을 예측하여 생산과 가격 정책을 수립할 때 기초 정보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요약 및 결론

1. 본 연구의 조사 대상자인 대학생을 성별을 기준으로 구분하여 대중매체에 관한 선호도와 신뢰도, 식품안전 정보 제

공 매체, 식품안전 관련 지식 등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대중매체에 대한 선호도는 남학생은 지상파 TV(60%), 인터넷(21%), 신문(11%)의 순이었고, 여학생은 지상파 TV(60%), 신문(18%), 인터넷(17%)의 순이었다. 대중매체의 신뢰도는 남학생은 지상파 TV(53%), 인터넷(40%)의 순이었고, 여학생은 지상파 TV(55%), 인터넷(37%)의 순이었다. 또한, 식품안전 정보를 얻는 주요 대중매체로는 남학생은 지상파 TV(54%), 인터넷(38%)의 순이었고, 여학생은 지상파 TV(57%), 인터넷(37%)의 순이었다. 한편, 식품관련 전공자와 비전공자의 조사에서 대중매체에 대한 선호도는 전공자는 지상파 TV(64%), 신문(17%), 인터넷(14%)의 순이었고, 비전공자는 지상파 TV(51%), 인터넷(22%), 신문(19%)의 순이었다. 대중매체의 신뢰도는 전공자는 지상파 TV(67%), 인터넷(28%)의 순이었고, 비전공자는 지상파 TV와 인터넷 모두 44%이었다. 또한, 광우병 정보를 얻는 주요 대중매체로는 전공자는 지상파 TV(52%), 인터넷(40%)의 순이었고, 비전공자는 인터넷(47%), 지상파 TV(39%)의 순이었다.

2. 최다 광우병 발생 국가에 대한 질문에는 남학생, 여학생 모두 미국(66%, 75%), 영국(29%, 17%)의 순으로 응답하였다. 향후 우리나라에서 광우병이 발생할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서 남학생은 '조금 있다'(69%), '많다'(17%), '거의 없다'(12%)의 순이었고, 여학생은 '조금 있다'(59%), '거의 없다'(22%), '많다'(17%)의 순으로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 압도적으로 발

생 가능성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광우병과 치매 연관성에 대한 질문에는 남학생은 '조금 있다'(53%), '많다'(20%), '거의 없다'(17%)의 순이었고, 여학생은 '조금 있다'(47%), '거의 없다'(25%), '많다'(15%),의 순으로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 과반수 이상이 관련 있다고 응답하였다. 한편, 최다 광우병 발생 국가에 대한 질문에는 전공자와 비전공자 모두 미국(66%, 75%), 영국(29%, 17%)의 순으로 응답하였다. 향후 우리나라에서 광우병이 발생할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서 전공자는 '조금 있다'(68%), '많다'(17%), '거의 없다'(12%)의 순이었고, 비전공자는 '조금 있다'(59%), '거의 없다'(21%), '많다'(17%)의 순으로 전공자와 비전공자 모두 압도적으로 발생 가능성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광우병과 치매 연관성에 대한 질문에는 전공자는 '조금 있다'(53%), '많다'(21%), '거의 없다'(17%)의 순이었고, 비전공자는 '조금 있다'(47%), '거의 없다'(25%), '많다'(15%),의 순으로 전공자와 비전공자 모두 과반수 이상이 관련 있다고 응답하였다.

3. 남녀 대학생의 식품안전 관련 심층지식 질문에서 프리온은 '모른다'와 '조금 안다'가 남학생은 전체의 73%, 20%, 여학생은 전체의 76%, 21%, SRM은 '모른다'와 '조금 안다'가 남학생은 73%, 22%, 여학생은 81%, 16%, 30개월령 이상 소는 '모른다'와 '조금 안다'가 남학생은 33%, 48%, 여학생은 28%, 54%, MM형 유전자는 '모른다'와 '조금 안다'가 남학생은 75%, 20%, 여학생은 80%, 17%를 각각 응답하였다. 한편, 광우병 관련 심층지식 질문에서 프리온은 '조금 안다'와 '잘 안다'가 전공자는 전체의 31%, 16%, 비전공자는 전체의 40%, 20%, SRM은 '조금 안다'와 '잘 안다'가 전공자는 27%, 12%, 비전공자는 26%, 6%, 30개월령 이상 소는 '조금 안다'와 '잘 안다'가 전공자는 56%, 24%, 비전공자는 58%, 21%, MM형 유전자는 '조금 안다'와 '잘 안다'가 전공자는 25%, 12%, 비전공자는 58%, 21%를 각각 응답하였다.

이상의 결과에서 대학생들은 식품안전에 관한 정보와 출처 신뢰도를 주로 지상파 TV와 인터넷에서 얻고 있어, 정보의 신뢰도가 떨어질 수 있고 흥미 위주의 정보가 될 수 있으며, 최다 광우병 발생 국가 등 광우병 관련 지식과 인식이 아직도 부족한 것으로 사료된다. 식품안전과 관련된 대중매체의 보도가 청년 소비자인 대학생의 식품안전 지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지금까지의 결과를 토대로 향후 식품안전에 대한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교육과 홍보의 기반을 구축하고 아울러 육류 생산과 유통분야에 의미 있는 정보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참고문헌

- Choi BB. 2009. Studies on the food safety informations of college students. *Korean J Food & Nutr* 22:612-617
- Choi BB. 2009. Studies on the satisfactions of elderly welfare professionals in the northern Gyeonggi-do area. *Korean J Food & Nutr* 22:215-222
- Collins SJ, Lawson VA, Masters CL. 2004. Transmissible spongiform encephalopathies. *Lancet* 363:51-61
- Cousen SN, Vynnycky E, Zeider M, Will RG, Smith PG. 1997. Predicting the CJD epidemic in humans. *Nature* 385:197-198
- Jin HJ, Koo WW. 2003. The effects of the BSE outbreak in Japan on consumer's preferences. *European Review of Agricultural Economics* 30:173-192
- Jin HJ. 2006. Korean consumers' response in meat demand to public information regarding BSE outbreaks. *Safe Food* 1:9-45
- Johnson FR. 1988. Economic cost of misinforming about risk: The EDB scare and the media. *Risk Analysis* 8:261-269
- Kim YS. 2001. Prion diseases. *J Korean Neurol Assoc* 19:1-9
- Lee EJ. 2001. The effect of BSE news reports on beef intake. *Food Service Management Research* 4:223-239
- Lee YS. 2004. Mad cow disease and food safety. *Proceedings of the Korean Society of Food Hygiene and Safety Conference*, pp.91-97
- Ministry for Food,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ies. Meatwatch system. Available from: <http://www.mtrace.go.kr>. Accessed Jun. 13, 2010
- Piggott NE, Marsh TL. 2004. Does food safety information impact U.S meat demand? *American J of Agricultural Economics* 86:154-174
- Prusiner SB. 1994. Biology and genetics of prion diseases. *Ann Rev Microbiol* 48:655-686
- Seong JE. 2007. Type of technological risks and comparison of risk governance: The case of BSE risk management. *Administrative Thesis* 46:63-91

접 수 : 2011년 3월 14일
 최종수정 : 2011년 6월 13일
 채 택 : 2011년 6월 19일